기금 300억원 자체 확충…문화카페로 시민과 소통

광주문화재단 개혁안 마련

정책기획팀 재편, 심사위 신설해 보조·위탁사업 선정

광주시 매년 기금 출연 긍정적…방만한 사업도 손 봐

서영진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된 광주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의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가 경영효율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은 매년 시의 출현금 20억원을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 투명한 보조·위탁사업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도 본청은 문화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고, 전문성을 가진 재단에 문화 사업을 맡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문화재단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화재단 개혁안에 뭐가 담기나?**=현재 문화재단이 마련한 개혁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기금 확충 방안이다. 조례에 따라 문화재단 적립기금 목표액 500억원은 광주시의 일반회계에서 출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정 압박 등의 이유로 지난 3년간 기금 확충은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적립금은 86억4100만원 뿐이며,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올 자체자금 비율도 광주는 2.21%(전체예산 169억2200만원 중 3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문화재단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시 출현금을 통해 기금을 확충하고, 재단 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에 매년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추가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이 같은 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진 대표는"광주시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고, 장기 계획을 세워 300억원을 자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은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단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지나친 행사 위주의 사업들도 손 보고, 보조·위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정책 기획 분야 강화**=창립 4년이 지난 재단은 현재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금 확충 이외의 개혁안의 큰 틀은 행사 위주의 재단 운영에서 벗어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문화재단의 정책기획 역할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조직, 인사, 직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정책기획 및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고 재단 임무에 맞는 기능적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문화재단의 정책연구팀은 직제만 있을 뿐 팀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유령 조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 밖에 문화재단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간에 문화도서관과 문화카페를 개설한다.

◇**기금 확보 등 숙제**=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늘려 재단 기금 일부를 확보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 본청 살림도 넉넉하지 못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목표액인 500억원을 확보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재단의 적립금 86억여원의 1년 이자수익은 2억여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목표액 500억원을 채우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으로는 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 이자수익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단 기금이 2000억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 기금 지원뿐 아니라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시가 운영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시설 소유권을 아예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 기관의 운영 수익금을 재단 운영에 쓰는 게 무작정 기금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지난 30~31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하는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고, 오는 5일 정책관련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안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 저항정신에 닿도록

9일 조태일 시인 15주기 문학기행

'국토'의 시인 조태일(1941~1999년) 시인 15주기 추모문학기행이 오는 9일(오수 2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곡성군과 광주대 문예창작과 동문회가 주관하고 광주전남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을 주제로 문학 강연, 시낭송, 시노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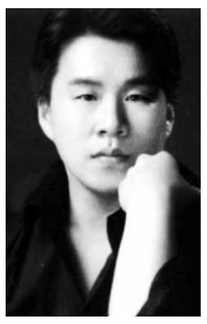
서울숭의여대 교수 강형철 시인의 문학강연, 이동순 조선대 교수와 김선기 강진시문학파기념관 관장의 발제에 이어 김민휴 시인과 이호우 시인 등이 조태일 시인의 작품을 낭송한다. 이밖에 동화작가 김성범 씨와 시인이자 가수인 시남영 씨가 조태일 시인 등의 시를 소재로 한 시노래를 들려준다.

곡성 출신 조 시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폭압적 현실에 맞서 시를 노래했던 저항시인이자 서정시인이다. 1964년 경희대학교 재학 중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아침 선박'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1969년 월간문학지 '시인'을 창간, 김지하· 양성우·김준태 시인 등을 발굴하기도 했다. 문의 010-3007-2833.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피아노 5중주를 만나다

소울 앙상블 '슈만과 브람스' 7일 금호아트홀



김재준

슈만의 '피아노 5중주곡 op.44'는 운치 있는 가을날과 잘 어울리는 곡이다. 특히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2악장은 사람을 한없이 차분하게 한다.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곡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마련됐다. 소울 앙상블의 연주회 '슈만과 브람스'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혼과 마음을 뜻하는 'Soul'을 이름으로 삼은 소울앙상블은 현악 편성을 기본으로 피아노를 더해 듀오에서 피아노 5중주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멤버 간 서로의 연주력과 호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리더를 맡고 있는 첼리스트 김재준씨를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강세라,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김민경, 비올리스트 이기헌씨가 함께 한다.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슈만의 작품과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곡 f단조 Op. 34'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

문화로 중국과 친해지기

광주문화재단, 6일 정책 세미나

정율성탄생 100주년 기념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보는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한·중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문창현 광주발전연구위원이 '차이나 프렌들리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대 중국 문화교류 방안', 왕샌민(王憲民)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 총영사가 '중한관계 및 광주와 중국간 문화교류',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가 '차이나 프렌들리와 아시아문화중심광주'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회석 전남대학교 교수, 이미화 중국 문화부 중외문화교류중심 중국대표, 박광석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이 참여한다.

세미나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문화나무예술단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정율성의 작품을 연주한다. 문의 062-670-746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감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융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융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